

폴란드·독일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과 일본의 역사화해 가능성

송 규 진 (고려대)

1

머리말

2

폴란드 · 독일 관계사

3

폴란드 · 독일 역사화해의 과정

4

맺음말:한국과 일본의 역사화해 가능성

1

머리말

21세기 전후

평화에 대한
기대

전쟁과 테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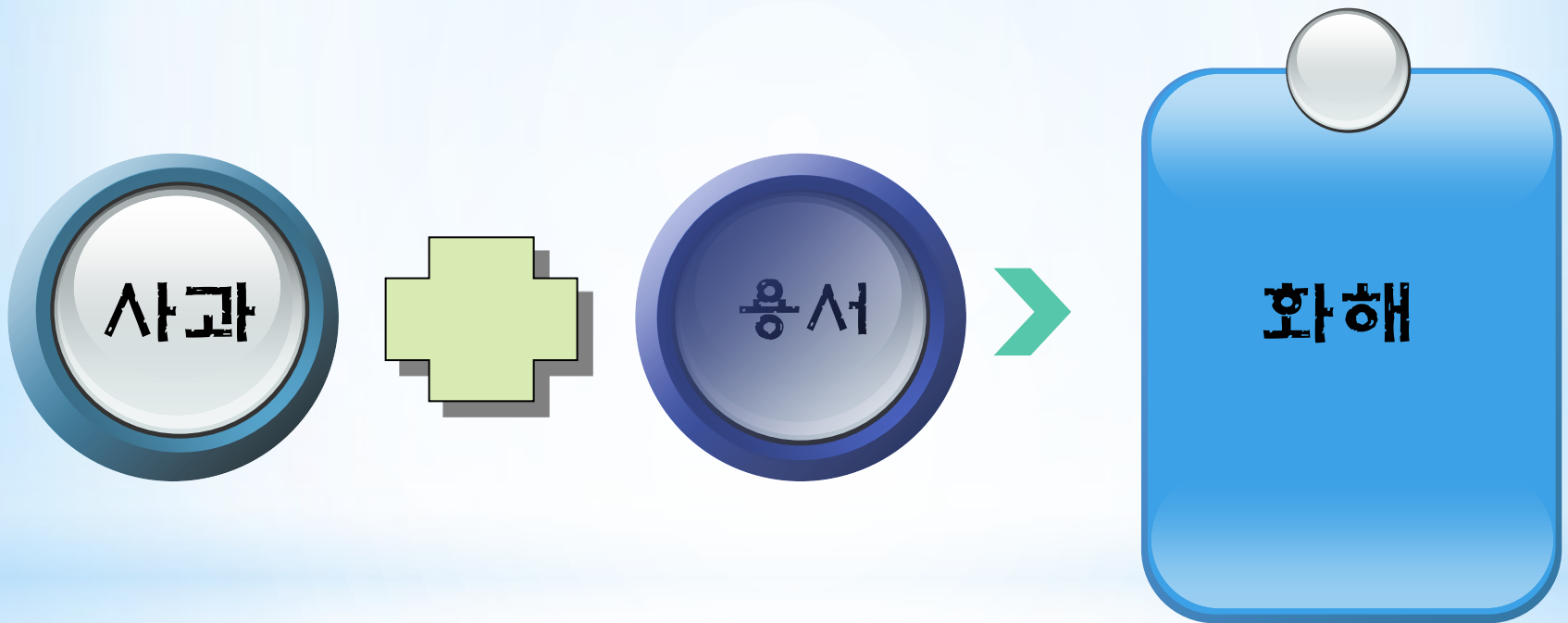
동(북)아시아공동체론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독도문제와 역사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합의?

한일
역사와해
가능한가?





폴란드 영토 변경

Szkolny atlas historii Polski, Poznań 2008, 4쪽.

폴란드



폴란드와 독일의 관계

- 역사적으로 분쟁과 갈등을 계속 벌임
-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폴란드인과 독일인은 형제가 될 수 없다”
- 근대시기 폴란드는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에 의해 분할통치를 경험

폴란드 분할 지도

The Partitions of Poland

The map shows the collapse of Poland divided onto parts by its neighbou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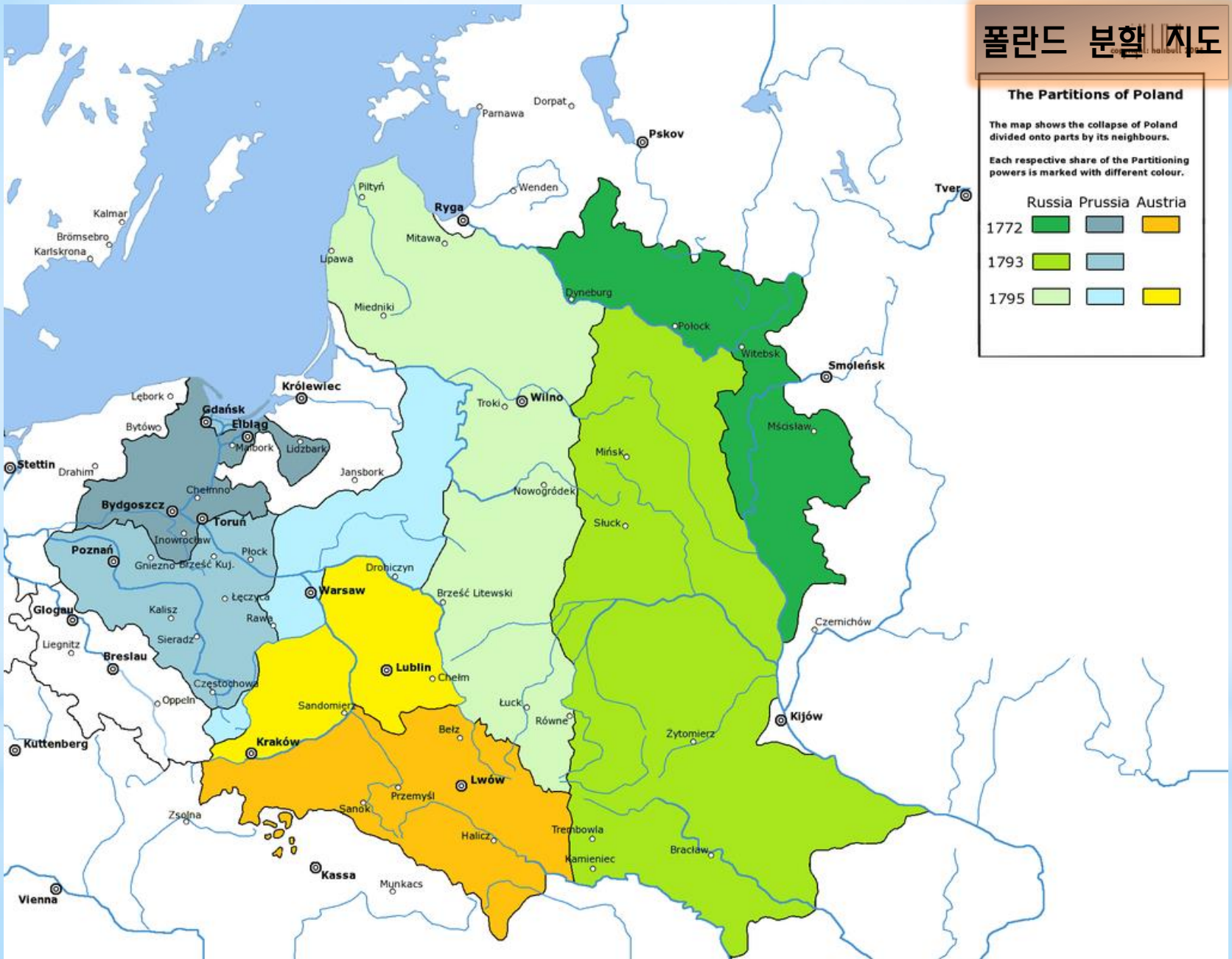
Each respective share of the Partitioning powers is marked with different colour.

Russia Prussia Austria

1772   

1793  

1795   



폴란드와 독일의 관계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 독립
- 폴란드에서는 ‘독일적 위험’ 강조-괴물
- 독일인은 ‘폴란드는 잠정적인 ‘한철국가(Saisonsstaat)’-벌레



1921



폴란드와 독일의 관계

- 제2차 세계대전 시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를 분할점령, 유태인 학살



폴란드와 독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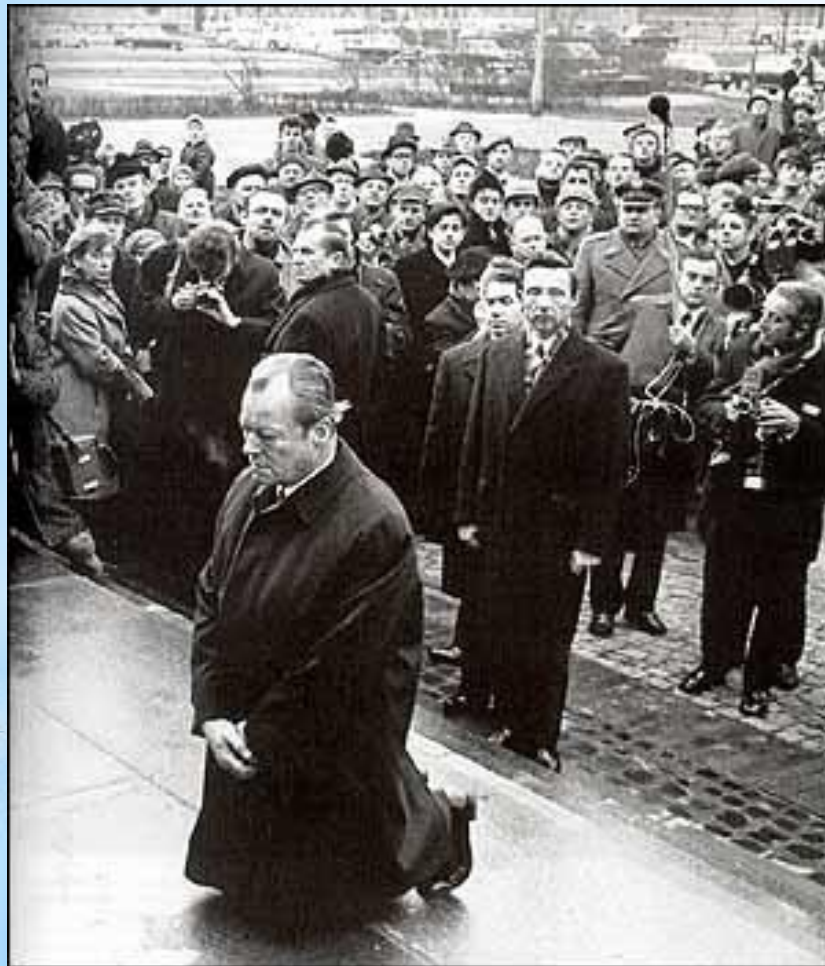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경문제와 독일인의 강제추방으로 심각한 갈등관계



폴란드와 독일의 관계

-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서독의 시민단체가 독일과 폴란드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
- 빌리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으로 독일-폴란드 관계에 획기적인 전기 마련

1970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 바르샤바 게토지구 방문 사죄



폴란드와 독일의 관계

- 1989년에 동독의 붕괴에 따른 독일통일, 12월에 폴란드공산당 정권 종식 이후 1990년 11월에 바르샤바에서 독일과 폴란드가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국경을 확인’ 하는 조약을 체결했고 1991년 6월에 ‘좋은 근린관계와 우호적인 협력에 대한’ 조약을 조인

3

폴란드 · 독일의 역사화해 과정

유럽연합의 형성과 유럽 공동의 개설서 집필

독일과 프랑스 공동 역사교과서 출간

독일과 폴란드의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 합의

폴란드와 독일의 역사화해를 위한 지속적 노력

- 폴란드와 독일의 근대역사학도 국수주의적인 입장이 우세한 위치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폴란드 관계를 상호이해와 평화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진정서
- 1937년 4월에 베를린, 8월에 바르샤바에서 독일·폴란드 교과서 협의회가 개최
- 제2차 세계대전으로 물거품

폴란드와 독일의 역사화해를 위한 지속적 노력

- 1950년대 이후 독일-폴란드 역사대화를 위한 노력시도:엔노 마이어, 게오르그 에케르트
- 1956년 동부학을 위한 권고안(독일판 망언)으로 교착상태
- 1969년 쿤터 베른트(서베를린 개신교 아카데미 원장)가 독일과 폴란드 교과서대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
- 1972년 독일-폴란드 역사대화
- 9차례의 회의 끝에1977년에 양국어로 된 권고안 발간. 독일-폴란드 대표자 모두 곤욕을 겪음
- 1989년 12월에 공산정권이 종식된 이후 국정교과서 제도 폐지 이후 역사대화 급진전
- 독일인 추방에 관한 전시회 기획 등 우파의 훼방
- 2008에 공동역사교과서를 만들기로 합의

4

맺음말:한국과 일본의 역사화해 가능성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국 중심주의에 입각한 역사관을 바탕으로 역사 서술

역사화해를 위해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

한국과 일본의 관계

- 임진왜란으로 조선인의 피해막심
- 기유약조(1609)이후 우호적 관계
-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의 침략, 식민지배와 해방, 외교관계단절
-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외교관계 재개
- 한국인은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민족’ 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일본에게 강점되어 식민지배를 당했다는 것에 대해 큰 굴욕감
- 역사화해를 위해서는 식민지배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있어야
- 역사교과서가 걸림돌로 작용

일본의 교과서 파동

- 제1차 교과서공격: 1955년에 <우려해야 할 교과서 문제>
- 제2차 교과서공격: 1980년에 <의문투성이의 중학교과서>
- 제3차 교과서공격: 1996년에 ‘자유주의 사관연구회’가 ‘일본군위안부’ 기술 비판. 1997년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결성하고 교과서 발행하여 2001년에 검정 통과

한국과 일본의 역사화해 노력

- 1991년에 한일 역사교과서 공동연구
- 한일간의 공동연구 과정에서 공동교과서 발간문제 논의: “한일과 같이 복잡 미묘한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는 이 문제는 희망을 할 수 있을지언정 실현되기는 어렵다”
- 2001년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발족
 - 2005년에 제1기 공동연구결과보고서 발간
 - 2010년에 제2기 공동연구결과보고서 발간
- 한일 역사교사단체, 한일 대학, 한일 여성학자에 의한 공동역사교재 발간
-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학자가 공동 집필한 동아시아 역사서도 등장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무력화

비교사적 방법론 활용

벨기에 역사가 앙리 피렌느(Henri Pirenne)
‘역사학에 있어서 비교의 방법에 대하여’를
통해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교전국들이 두 학문
분야, 즉 역사학과 화학을 ‘징용’했다고
지적했다. 화학이 폭약과 독가스를 제공했다면
역사학은 ‘대의명분, 정당화의 근거 혹은
변명을 제공함으로써 인종적, 민족적 편견을
조장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恕
己所不欲勿施於人

감사합니다.